

추도사)

오직 대광학교와 기독교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생애

## 제9대 교장 탁준호

대광! 하면 ‘진짜 기독교학교’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과 이창로 장로님이 떠올려 집니다.

두 분이 제대로 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명실상부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인연은 장로님이 신의주 평안중학교 재직시, 신의주 제2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하다가 일제의 박해로 ‘보린원’으로 물러나 있던 한 목사님을 만나 4~5년 교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한 목사님은 1945년 10월에 남북분단과 공산주의자들의 가혹한 탄압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남 신도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던 중, 12월 2일 주일에 27명의 신도와 함께 ‘베다니 전도교회’(현 영락교회 전신)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1946년 3월 초에 월남 하시어 베다니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봉사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 장로님은 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미군정청 문교부 보통 교육국 중등교육과의 “장학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학사로서 당면한 큰 문제는 자유를 찾아 계속 월남하는 학생들의 취학알선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가 아니었으나, 월남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 목사님께 ‘기독교 학교 설립건’을 의논드렸고, 이에 한 목사님은 이북 교역자들과 의논하여, ‘이북 신도대회’를 열어 월남신도 자제를 위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립 허가 청원서류 작성과 문교부 내에서의 모든 사무적인 절차는 이 장로님이 직접 담당하였고, 1947년 11월 25일 자로 학교 설립 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문교부 장학사직을 사임하고 대광중학교(당시 6년제) 교감으로서 개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북에서 월남한 교사들(10명)로 교원조직을 하고, 초대 교장으로 백영엽 목사님을 영입하고, 입학 지원을 받은 월남 학생 201명으로 개교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실 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임시로 서대문에 있는 피어선 성경학교 교실을 빌려 쓰기로 하고, 1947년 12월4일 개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교식에서 이사장 한경직 목사님은 대광의 건학정신을 ‘경천애인’(교훈)의 복음주의 정신에 기본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둔다고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기독교 교육’·‘애국애족 교육’·‘민주 교육’·‘과학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임시교사를 빌려 개교한 대광은 1949년 2월에 동대문구 신설동 현재의 교지로 이전하였습니다.

학교 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장로님은 1952년~1955년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한 목사님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의 목적은 대광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을 연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을 통해 교육철학에서부터 전 교육과목에 걸쳐 탐구할 기회였기에, 귀국 후 대광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곧 'H·R 활동'이 시작되었고, 자치활동으로 '학생회'가 조직되었고, 개성과 취미에 따라 '특별활동'을 하게 되었고, 훈육지도 대신 상담 활동을 통한 '인성 지도'에 힘쓰게 되었고, 각 교과 지도에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대광교육의 우수성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1960년 제3대 교장과 1964년~1985년 제5대 교장을 역임하면서, 개교 당시의 한 목사님이 선언한 '경천애인'의 건학정신을 재차 강조하면서, '기독교 교육'·'애국애족 교육'·'민주 교육'·'과학 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 함양'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최고의 전인교육이라는 신념으로, H·R예배(학급예배)·전체예배·성경공부를 중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건축, 강당건축, 초등학교 설립, 과학관 건립, 체육관 건립, 생활관 건립, 예능관 건립 등을 이행하면서 기독교교육의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1985년 교장직무를 마치고, 전적으로 대광학원 재단 부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더욱 대광학교의 육성·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2002년에 명예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실제로 한 목사님은 개교 당시부터 이사장직을 장로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장로님이 실제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1947년 개교부터 2015년 소천하시기까지 68년을 교감·부교장·교장·부이사장·명예이사장 직책을 두루 맡으면서 오직 대광학교의 발전과 기독교 교육의 성취를 위해 사랑과 열정을 바친 생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기에 이창로 장로님이 계셨고, 이창로 장로님이 계셨기에 대광학교와 대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애와 섭리가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